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기도서 459 면(A해)

제1독서 : 이 사 45, 1. 4-6
제2독서 : 1 데살 1, 1-5b
복 음 : 마 태 22, 15-21

순정이

발행처 : 전주교구전주교구
편집인 : 홍보국
인쇄 :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어인 연고인고?”

박 병 준 신부

서울 장 안에 얼마 전부터 쿵쿵하는 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데, 돈있고 권세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사시같이 떨고 식은땀을 흘리더라는 것이다. 이 쿵쿵하는 소리의 내력은 이러하다. 청량리 중앙천 방죽 위 판자집 한 귀퉁이 방에 청운의 뜻을 품고 시골서 올라와 세들어 사는 안도라는 놈이 있었다. 그는 그 무슨 전생의 악연인지, 그 무슨 뿔뿔 살이 팔자에 끼었는지 단사가 되지 아니한다. 두 발로 땅을 딛고 버티는 건 무조건 안되고 자칫하면 온갖 듣지도 보지도 생각도 못한 죄목들이 연달아 줄레줄레 쏟아져 나오니 사시사철 밤낮으로 그저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십원 벌린 백원 뺏기고 백원 벌린 천원 뜯기고 형형색색 잡놈들에게 채이고 밟히고 마지막 속옷 안에 꼬불쳐 둔 고향갈 차비까지 죄 털려 버리는 것이다. 동서남북 싸돌아다니다 지치고 주리고 미쳐서 어느날 노을진 저녁에 두 발을 땅에다 털퍼덕 던고서 눈깔이 뒤집혀 “에잇 개같은 세상” 하고 세상을 저주한 소리 때문에 담박 끌려가서 매맞고 재판소로 넘겨져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반체제의식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머리도 두 다리도 잘리고 몸통만이 감방에 처넣어져서 500년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어허 이것이 웬 것이냐, 험빛고 굶주리고 죽도록 일만 하고 매맞고 억눌려도 말 한마디 안했는데 이것이 웬 것들이냐, 날아가는 기러기야 너는 내 속을 다 알리라.

김 지하 시인의 「소리의 내력」을 소개해 본다.

얼마 전 공소를 방문했을 때 안보이던 큰애기를 만나게 되었다. “어인 연고인고?” “몸이 아파서 직장 일 그만 두고 귀향했어요” “어인 병인고?” “하루종일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고 제대로 못 쉬니까 무릎 관절염이 생겼대요” “쫄쫄! 한창 일할 10대 나이에 정말 안됐구나!”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이와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 14, 16). 관절염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관절염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빛이 되는 것일 게다. 아마도 우리가 할 일은 요지경의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착한 행실로 말이다. 세상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럴려면 자신을 태우는 고통은 따르게 마련, 전교주일에 몇 마디 해본다. (고산 주임신부)



무관심이라는 병

정치 부재(不在) 현상을 심각하게 걱정하던 시대가 우리에게는 있었다. 국민의 의사와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은 무시되고, 집권자의 뜻만 따르다 보니, 정치는 은폐간매가 없고 일방적인 행정만이 독주하던 시대가 있었다. 결국 정치 부재는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병폐를 낳고, 악순환을 부르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혐오·반감·경시·무지·무력감·무권리 등으로, 지적(知的) 의욕도 없고, 정치적 권리의 행사도 하지 않고, 행사하더라도 자주성이 없이 행사를 하는 태도를 「정치적 무관심」이라 한다. 이는 결국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는 가능하다. 집권층의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 이를 밀게 될 때에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유신정권 18년 동안의 부재보다 현정권 4년 동안의 빛이 더 많다.”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법이 유신정권 때의 것보다 더 악법이다.” “이중 국적을 가진 특수계층은 누구인가?”—요사이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신문기사의 일부다. 그외에도 대학생들의 「학원 자율화와 노동법 개정의 주장」, 야당의 「선거법과 언론기본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제 실시의 주장」도 있다. 이토록 열키고 설친 매듭을 풀기에는 고도의 정치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마음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바탕에 깔릴 때,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병(病)은 치유될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워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자.

순정이 산책



『주님은 푸르실리스타
여러분만을 믿습니다』

전주교구 울뜨레야
때: 1984. 10. 28(일)
곳: 전주해성학교강당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마지막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V)

3. 쟁의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보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0일 또는 40일에서, 최고 80일 또는 90일이 경과해야 그 행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긴 기간이 경과해버리고 나면 사실상 쟁의행위가 어렵게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설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쟁의의 목표는 시들해져버릴 것이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라는 실력행사를 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이미 노사문제가 노사간의 대화, 협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유보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냉각기간 등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제3자 개입 금지의 문제

1980년 12월 31일 노동관계법이 바뀌면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현행 노동관계법에 신설되었다. 즉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단체행동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금지조항에 위반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식과 정보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노동자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제3자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의사에 의한 지원행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제3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필요한 경우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업주들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에게서 자문과 지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상급단체, 전문가, 학자, 변호사, 언론인, 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합법적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연대운동으로 이끌어질 때에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상호간의 연대와 지원, 상급단체의 지원 특히 소비자단체 등 시민과의 연대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을 상호중립으로 고립 약화시키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상호유대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반민주적 입법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전교주일 담화문(요약)

고통, 복음 전파의 씨앗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페르폴리아누스).

최근에 본인은 사도로서 극동을 여행하며 가톨릭 신앙의 증거자 103위를 시성하는 기쁨을 누리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한국 땅에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자신들의 지상 생애를 죽기까지 희생하여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특권을 지녔습니다.

그 모든 사정은 본인에게 몇가지 목상 소재를 던져주었는데, 이 전교주일을 맞아 본인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이를 목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십자가의 구원 가치

실제로 사도들의 시간이나 사도행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물러났다”(사도 5, 41)고 합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 11~12)고 구세주께서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맞닿는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쓰디쓴 고난과 참혹한 순교를 통하여 자신의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룩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 수고 수난의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그러므로 사랑은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 안에서 사랑은 창조적이며 무한한 구원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2. 복음화의 귀중한 도구가 되는 고통

이번 전교주일 담화문에서 강력히 권고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신자들이 수많은 형태의 고통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곧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고통을 십자가의 희생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스스로의 고통에 사도적이며 선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라고 청하는 바입니다.

3. 고통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황청 전교원조회의 계획

교황청 전교원조회는 교회의 선교활동에 특권을 지닌 기구로서 전교주일 뿐만 아니라 (3면 하단에 계속)

1984년도 전주교구 울뜨레아

때 : 1984년 10월 28일(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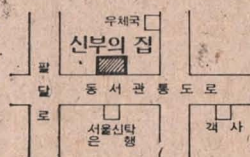
곳 :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강당

참가비 : 1인당 2,000원(중식·기념품 제공)

“3박 4일의 감격을 되새기며 우정을 나눕시다”

신부의집 (DRESS SALON)

[마춤·빌림·반환·판매]



-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신부화장
- 페백의상
- 부케
- 야외촬영서비스 (악세서리)

관동도로 서울신천은행 앞
대표 최영자 (헬레나)
☎ 6-6951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경) 농민 신앙 대회 (축)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일 시 : 11월 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 소 : 전주 해성학교
참가대상 : 교구내 신자 및 농민들
주 최 : 천주교 전주교구
주 관 : 천주교 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 교구 사제 연례피정

84년 교구 사제 연례피정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한림 이세돌 피정센터에서 김 창렬 제주교구 주교님의 지도로 있게 된다.

피정기간동안 본당에서는 말씀의 전례가 거행되며, 긴급한 병자성사, 장례미사 등을 위하여 교구청에는 2분의 신부님들이 대기하고 계신다. 모든 신부님들이 보람된 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중에 기억하도록 하자.

□ 전주교구 꾸르실료 올뜨레아

84년도 교구 올뜨레아가 10월 28일(일) 오전 10시부터 해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그간 꾸르실료는 남성 교육이 20차, 여성 교육이 17차에 걸쳐 있었다. 평신도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꾸르실료 교육은 15년동안 1500여 꾸르실리스타를 양성하기도 했다. 금년도 올뜨레아는 개회식, 평신도와 성직자의 강의, 사도의 시간, 기별 모임, 폐회미사의 순서로 열린다. 꾸르실리스타의 참석을 바라며 참가비는 1인당 2천원이다.

□ 새로 나온 책 소개

성서와 언어과학—구조분석의 이론과 실천, 서 인석 지음, 값 7,000원
최근의 언어과학적 모델에 따른 성서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나가면서 성서의 의미를 깨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성서 이해를 돕고 있다. 성서를 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마태오 복음—성서묵상①, C.M. 마르페니/성 열 값 3,200원
교회의 복음서라고 일컫는 마태오 복음서를 영신수련의 한 방법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다섯편의 대설교를 중심으로 묵상의 주제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복음서와 함께 묵상에 들어갈 수 있게 엮었다.

구약성서의 이해Ⅲ—계약공동체의 쇄신, B.W. 앤더슨/이 성배 값 4,000원
구약성서의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 문해비판, 성서신학 등 성서연구의 제분야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풍부한 도표 및 지도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전개해 가고 있는 이 책은 성서를 이해하고 음미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성 바오로 출판사—

(2면에서 계속) 일년내내 선교정신을 함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천교주일을 맞아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특별한 숙고를 하자고 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사도직의 가장 고귀한 표현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병든 자, 노인, 버림받은 자, 소외당한 자, 또한 수인 등을 선뜻 받아들일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으로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계가 안고 있는 죄의 구조가 무거울수록 인간 고통이 그 자체안에 간직하고 있는 응원은 그만큼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인간 고통의 가치에 의존할 필요를 그만큼 더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도록 직간접으로 힘을 쏟으며 자신의 고통을 바치고 있는 분들에게 기꺼이 본인의 특별한 사도적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십이(585) 김병오



- 훈수(회장)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도매상
- 각종 솜 일체 |
- 커네티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르네상스미용실

디자인 컷. 속눈썹 파마
최신유행 파마로 여러분
을 멋있게 가꾸어 드립니다.

전주시 중앙동 2가 50-4
☎ 2-5177
이 유배(가타리나)

유공 흥국상사 흥국주유소

(휘발유. 경유. 석유) 품질보증 · 정량신속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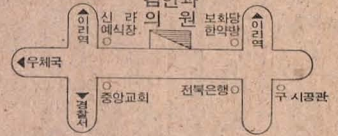
전주시 팔복동 삼거리
☎ 3 1193 · 75 5501
장 마리오
김 테레사



김안과 의원

부설 : 국제 콘택트 렌즈

이리시 중앙동 3가
(전북은행 이리지점 앞)
원 장 안과전문 김효열
TEL. 52-3351
전 은 주 (베로니카)



(4) 순 정 이



1. 장애자 모임 「하나회」 피정: 21일 오전 9시30분, 장소-센타 교육관
 2. 10월 꼬미씨웃음 회의: 21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꾸리아 간부 및 직속Pr. 간부 전원
 3. M.E 소개의 밤: 21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타
 4. 10월 성소자 모임: 28일 오후 1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3층, 대상-성소모임 회원 및 관심있는 남자
 5. 군옥지구(제3지구) 구역 및 반회장 연수회: 29일, 장소-여산성당
 6. 10월 은혜의 밤 및 철야가도회: 31일 오후 7시30분, 장소-효자동성당, 대상-성령세미나 받으신 분들
 7. 84, 제10차 레지오 간부 연수회: 11월 4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타, 대상-레지오 마리에 간부 및 후보자
 8. 베델서서 휴강: 신부님 피정 관제로 (** 대·소 예언서를 읽어오십시오)
- 축! 영명: 성 시몬·유다 사도(28일)-박 중신·한 봉섭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윤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1. 사제 피정: 22~26일 제주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정기간중 말씀의 천례 (미사없음), 22일-없음
 23~25일-저녁 7시, 26일-10시30분 (어머니미사)
 2. 유아세례: 11월 2일 (사제 피정 관제로)
 3. 홀인상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1개월전에 본당신부님과 면담하세요
 4. 돼지저금통: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요?
 5. 방ziger 3회: 오후 2시, 28일
 6. 목자반 첫고백: 11월 3일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969,395원 교무금: 1,119,500원
 감사헌금: 백레오바르도·박세시리아-20,000원

(노송동)

전부 ①0969
 수·사 ①7032
 주임 신부 김 흥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철 재

1. 정성파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사: 김규석-7만원, 임인준-4만8천원, 김홍선·최유스티나·박한주-각 6만원, 소인규·임양순·황명진·이윤복-각 2만원, 정인숙-3만원, 심복레·조해경·박선자·김정순·박정자·송봉운·김요순·김중순-각 5만원, 소계-808,000원
 누계-110,962,000원
 2. 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유아영세식: 27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4. 전례위원회 모임: 28일 공식미사 후 각조의 위원들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6. 아파트 성령세미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7. 아파트 주일미사 시간변경: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7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9. 차주의 전례담당: 제 2 조, 빠짐없이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364,335원 아파트-128,900원
 교무금: 282,000원

(덕진)

전부 (3) 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전화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 (72) 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성모회·박석희·사도회 상임위원회
 2. 교구 사제피정: 22~26일 (이 기간 저녁미사만 있음)
 3. 유아세례 및 보례: 다음주일 (28일) 오후 3시 아동미사후, 미리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4. 중·고등부 토요일 강좌: 27일·11월 3일·10일, 토요일 찬미사 후
 5. 금주 회합안내: 선교분과위원회 20일 오후 8시, 교무분과-24일 오후 8시, 재정, 봉사분과-26일 오후 8시
 6. 각 단체는 신년도(85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7. 본당의 날(11월4일) 행사 안내: ①견진대상자(새영세자는 금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28일~31일 밤 7시30분, 특별교육 있음), ②당일 행사를 위해 정결증 기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③3천 대가족 잔치가 되도록 모두 적극 협력합니다
 8. 금주 분당철소: 진복회·성심부녀회(27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552,930원 교무금: 300,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신부님 피정: 22~26일, 23~25일 미사없음
3.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4. 빈첸시오 회원교육: 29일 오전 10시, 김영신 신부

5.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희영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이갑진
 6. 금주철소: 월-사당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차주철소: 월-다워의 탑, 토-셋빛
- 지난주 봉헌금: 134,660원 교무금: 374,100원

(서학동)

전부 ①8307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①2276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전보수 공사헌금: 윤정순-5만원, 함옥심·이정빈-각 10만원, 김복순·오현순-각 3만원, 최정수-2만원, 박봉이·김삼순·소연주·차상열·진정금·박요습·강봉환·김순애·구양례-각 1만원, 김청자·염영선·유삼표·최병순·김옥진·이귀남-각 5천원, 김자득·두경례-각 2천원, 익명-30만원 감사합니다
 3. 신부님 피정: 22일~27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예비신자 모집: 등록 바랍니다
 5. 공소방문: 광곡리, 27일 오후 3시
 6. 차주전례: 해설-김낙완·김은경
 독서-①김나섭 ②박경환, 기도-의덕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330,140원 교무금: 219,500원

(순정이)

전 화 ①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 수 검

- ☆ 축! 영세: 새로 영세하신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성모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전교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3. 첫영성체 (어제 영세자): 오늘 공식미사 중
 4. 예비자교리: 11월 첫주부터 새로시작
- 지난주 봉헌금: 209,600원 교무금: 355,000원

(전동)

전 화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 양
 사무 ①3222 보좌 신부 정 암 희
 수녀 ①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전교주일: 금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2. 성화회 야유회
 3.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4.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4시
 5. 꼬미시움 직속 성마리아 꾸리아 연중친목회: 27일 11시, 장소-중바위, 점심-쁘레시디움빌 공동 준비
 6. 신부님 피정: 22일 저녁미사~26일 저녁미사 없음 단, 말씀의 전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7. 저녁미사 시간변경: 22일부터 7시에
 8. 200주년 기념사업에 정성과 관심을 가집니다
 이창수·최순남-각 2만원, 익명-100만원, 성희원·김집마-각 10만원, 이주철·신옥철·소준영·최성용-각 5만원, 이동림·황궁용-각 3만원, 최기준·송은영·김은순·이무희·이중이·임여섭·윤봉림-각 1만원, 유철중·김중화·김정철-각 20만원, 송제진-30만원
- 지난주 봉헌금: 830,960원 교무금: 298,500원

(호자동)

전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사제 피정: 22일-26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성물 판매소: 사무실로 이전
 3. 사도회 상임위원회: 27일 저녁 7시30분
 4.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 28일 10시
 6. 28일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317,540원 교무금: 484,000원